

書

評



國會圖書館司書局參考書誌課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1968

IX, 1439, 72p. 26.4cm.

우리나라에 있어서 編纂된 現存 最古의 書目은 高麗 때 義天이 編錄한 「新編諸宗教藏錄」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 主題分野인 全科目錄에 지나지 않는다. 李朝의 現存 書目으로서는 也尼堂 魚叔權이 明宗 9年(1554)에 編撰한 「攷事撮要板板目錄」이 最古의 것으로 傳해지고 있으며, 이어 仁祖 5年(1627) 司馬에 合格된바 있는 敬窩 全然 編의 「海東文獻錄」, 正祖 5年(1781) 閣臣 徐浩修가 閣古觀 또는 皆有窩와 西庫에 收錄된 圖書를 組織한 「奎章總目」, 同 20年(1796)에 徐有榮가 編한 「鏤板考」, 同 23年(1799)에 편찬되어 純祖 14年(1814)에 刊行된 弘齋全書群書標記, 英祖·純祖朝의 李肯翊 撰인 「燃藜室記述文藝典故」, 역시 同時代人인 韓致齋 撰의 「海東經史藝文志」, 英祖 46年(1776) 洪鳳漢 등이 奉命撰 한 것을 正祖 6年(1782) 李萬運 등이 그리고 다시 光武 7年(1903) 朴容大 등이 修訂 增補한 「增補文獻備考」에 所收된 藝文考 등을 비롯하여 여러 種의 書目이 傳해지고 있으나, 그 收錄範圍는 限定된 時期가 아니면 部分的인 調査와 一定한 所藏處를 對象으로 한 것에 不過하였다. 오히려 그 業績이 評價된다면 그 뒤를 이은 邦人이 아닌 外國人 即 「Bibliographie Coreennie」의 編者인 佛人 Mourice Courant과 「古鮮册譜」의 編者인 日人 前問恭作에게 돌아가야 할 것만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 마저도 三國以來의 右文與文化策에 따라 尙하게 生産되었던 文獻의 集大成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는 역시 그 一斑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듯 우리의 古典은 從來 質의 또는 量的인 面에 있어서 集成되지 못한채 未知의 世界로 남겨져 왔기 때문에 그 間의 韓國學 研究는 주로 外國人의 手에 의하여 만들어진 書目과 解説로서 겨우 枝葉的인 理解를 해 온 程度가 고작이었다. 그것뿐이라. 그 枝葉的인 知識마저도 外國人들의 그릇된 影像에 의해 韓國像을 올바르게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더욱 딱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最近에 와서는 韓國學 研究의 畧이 國內外에서 갑자기

高潮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때야 말로 올바른 韓國觀을 樹立하기 위하여 그 研究의 礎石이 되는 資料의 包括的인 組織이 그 어느때 보다는도 자못 아쉬운 時期이다.

이러한 時點에 즈음하여 同學 尹炳泰 學兄이 10有餘年前부터 國內外의 藏書目 또는 古書目을 널리 調査하는 한편 國內의 主要 圖書館과 機關에 所藏된 古書를 일일이 探訪하여 總 7萬 7千餘 標目을 作成하고, 二次的으로 본시 尹兄과 同苦收集에 從事해 온 參考書誌課 職員 金英實 氏가 주로 個人文庫를 實查 또는 그 所藏目錄을 入手하여 이처럼 龍大한 文獻을 量的으로 總錄해서 刊行하였음은 實로 韓國學 研究의 畧과 발맞추어 時宜를 얻은 一大 勞作임에, 그 業績을 衷心으로 敬賀해마지 않는 바이다.

本 古書總目錄에 組織되어 있는 1) 古書의 範圍는 우리나라의 古代로부터 韓末까지 사이의 刊·寫本 地圖 書畫帖 (一枚物의 書畫 拓本 및 古文書 除外)을 비롯하여 그 以後의 刊·寫本 中 著作 時期가 韓末 以前인 것으로 裝訂이 東裝인 것을 그 對象으로 해서 無慮 1,439面에 걸쳐 收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初有의 集大成 目錄이 되는 것이다.

2) 收錄의 範圍는 圖書館 및 기타 機關등에 있어서 國內 98個處, 日本 54個處, 中國 4個處, 佛蘭西 4個處, 美國 3個處 獨逸 1個處 포함 164個의 團體를 對象으로 하였다. 한편 個人文庫 또는 藏書에 있어서도 國內 399人, 日本 39人 포함 438人의 것을 對象으로 收錄하고 있는바, 그 收錄의 範圍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나라 初有의 集大成 目錄이 되는 것이다.

3) 收錄 方法에 있어서는 主로 既刊된 藏書目 古書目 및 各種 文獻을 土台로 轉載하였으며, 國內의 圖書館, 기타 機關 및 個人藏書 中 서울 中心의 것에 限하여는 實查와 所藏目錄의 入手를 並行하여 收錄하고 있다. 따라서 現藏目錄으로서는 이미 湮沒된 것과 그 所藏이 바뀌어진 것이 있음을 자주 發見할 수 있다.

4) 編成體裁는 刊·寫本의 二部로 나눈 다음 各各 書名을 標出하여 한글의 字母順으로 排列하였고, 以下 出版事項 版種 對照事項 註記事項등의 記述에 있어서는 實查한 것에 한하여 詳記하고 藏書目 또는 書目 中에서 轉載한 것은 不得已 略記 또는 省略하는 形式을 擇하고 있다.

5) 卷末에 編著者名이 한글의 字母順으로 排列되어 있어 著者·書名目錄으로서의 구실을 아울러 갖추고 있으므로 그 利用이 便利하다.

위에서 本 目錄의 內容을 簡單하게 紹介하였거니와, 이제 全體를 통하여 느껴지는 몇가지 斷想 내지 畧見을 적어 보고자 한다.

1) 이 目錄은 編纂形式上 現藏目錄으로 되어 있으나 既刊의 藏書目 書目 또는 各種 文獻을 土臺로 하여 體系化시켰기 때문에 實際에 있어서는 이미 所藏處가 바뀌어 지고 湮沒되어 버린 것이 적지 않다.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書院을 우선 들 수 있다. 慶州의 西岳書院玉山書院 崇烈祠, 安東의 三溪書院 虎溪書院 泗濱書院尙州의 道南書院, 玉成書院, 近巖書院, 星州의 檜淵書院 武屹書院 등의 藏書는 散逸된지 하마 百載를 훨씬 遡及한다. 다만 그 중 玉山書院등을 비롯한 몇몇 書院에만 그 일부가 겨우 傳存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奎章閣 所藏의 嶺南各校院書冊錄을 그대로 轉載한데서 온 缺陷이다.

寺刹의 所藏虛名 表示가 없는 것도 거의 湮沒되어 흩어졌으며, 個人의 所藏에 있어서도 例컨대 宋錫夏藏은 普成高等學校圖書館 禹貞相藏은 東國大學校圖書館에 각각 일찌기 移管되었다. 特別 日本人에 있어서는 더욱 甚하다. 小倉進平藏이 東京大學圖書館 今西龍藏이 天理大學圖書館 蘇峰成笈堂藏이 오다노미스 圖書館江田俊雄藏이 惠化專門學校(現 東國大學) 圖書館, 禿氏祐祥藏이 龍谷大學圖書館으로 各各 移管되는 등 故人之 것은 거의 大部分 그 所藏處를 달리고 있다.

이 綜合目錄은 現藏된 資料의 利用 案內가 爲主인 바 그 本旨에 어긋나는 點이 있음을 上記와 같이 指摘할 수 있으며, 따라서 某舊藏이라고 修正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所藏處를 修正하여 利用者에게 바람직한 인포메이션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느껴진다.

2) 本 綜合目錄의 거의 大半이 實查보다도 藏書目 書目 및 其他 各種 文獻에서 轉載 또는 拾錄하였기 때문에 著者表示를 비롯하여 形態記述에 誤記가 자주 發見된다.

첫째 : 著者表示의 誤記가 가끔 눈에 뜨인다. 그 一例를 들면 寫本部에 所收된 通文館志는 金慶門 등 撰으로 되어 있다. 刊本部에 있어서도 國立圖書館藏이 역시 그러하다. 이것은 日本人이 잘못 解說한 것을 踏襲한데서 온 缺陷이며, 金慶門 등 撰이 아니라 金指南 등 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 出版事項의 刊行年 表示가 가장 混雜하고 또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그 例가 너무나도 類出하여 일일이 들 수 없으나 그 중 손쉬운 것으로 한 두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刊本部 所收의 初出「三峯集」을 보면

「鄭道傳 著. 安東府 1465年 木板本. 7卷 4冊.

(藏) 日蓬左 足利圖」

로 되어 있다. 그러나 往年에 筆者가 實查한바에 의하면, 蓬左文庫藏本은 太祖 6年(洪武 30, 1397) 長胤 津이 처음으로 開板한 2卷本에 대하여, 그의 曾孫 文炯이 慶尙監司로 있을 때 增補 改編해서 世祖 10年(成化 1, 1464)

安東府에서 開板한 7卷 4冊으로서 두번 제로 刊行한 板本이 되는 것이다. 한편 足利學校圖書館藏本은 그後 成宗 17年에 文炯이 江原道觀察使로 있을 무렵 追刻한 經濟文鑑別集과 若干의 詩文을 安東으로 옮겨 本篇과 합치고 이듬 해인 成宗 18年(成化 23, 1487)에 印出한 8卷 4冊이며 세번 제로 上梓한 板本이 되는 것이다.

또 同 刊本部 所收의 後出「揭坡先生文集」을 보면 「李陸 著. 晉陽[跋: 哲宗 4年(1853)] 木板本(重刻, ……(藏) 奎章閣 潤松 足利圖」

로 되어 있다. 이 역시 筆者가 實查한 바에 의하면 足利學校圖書館藏本은 中宗 7年(正德壬申, 1512) 開板의 初刊本으로 推定되는 2卷 1冊의 木板本이며, 潤松藏本도 그 目錄에 의하면 이와 同一한 版種으로 적혀 있다 따라서 위의 刊行年 表示는 兩者가 다 같이 그 중 하나만이 각각 適中되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古書目錄에 있어서 刊行年 表示는 古書의 眞偽 또는 善劣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提供하는 核心部分이 되므로 그 鑑定에 있어 特別 慎重을 期하여야 하는 것이다. 古書는 初刊 以後 無數히 重刊되면서도 初刊年만을 그대로 覆刻하고 重刊年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기 때문에 반드시 實查를 거쳐 올바르게 그 刊行年을 判定하고 推定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야만 利用者가 同一書에 있어서 後刊本 보다는 初刊本 또는 그에 가까운 刊本을 善文으로 選擇하여 利用할 수 있고 인포메이션을 올바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세째 : 版種이 具體적으로 表示되어 있지 않다.

版種表示도 實查와 轉載의 如何에 따라 詳略이 甚하다 活字本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世界에 으뜸하는 獨創의인 鑄字印刷術의 發達로 말미암아 尙한 種類의 鑄字本이 印行되었다. 따라서 이 活字의 種類를 具體적으로 表示한다면 設使 刊行年 表示가 없다 하더라도 그 책의 刊行年을 넉넉히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木板本에 있어서도 出版事項에 따라 그 版刻의 次序가 달라지므로 또다시 書名을 標出하고 記述하는 것이 當然할 것이다.

3) 이 綜合目錄이 우리에게 所重한 入門資料가 되는 또 하나의 理由는 새로운 資料를 紹介해 주는 點에 있다. 主題分野의 研究者에 따라서는 書名도 著者도 모르는 文獻이 여기에 적지 않게 收錄되어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을 알아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보아야 하는 不便이 있다. 따라서 보다더 바람직한 利用을 피하려면 東洋에서自古로 主用해 왔던 主題別目錄을 만들고 著者·書名을 索引으로 卷末에 添附시켰다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

《6페이지에 계속》

과학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학문의 연구개발은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는 사서직에게는 부단한 연구를 수반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 제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묵묵히 일하는 사서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 직종별로 볼 때 수당을 타지 않는 직종이 오히려 적을 정도로 대부분 받고 있는데 사서직에게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사기를 북돋우어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담당하는 업무의 질과 양으로 보아도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우문제 때문에 유능한 사서직 공무원을 확보할 길이 없는데에 국공립 도서관의 운영상 애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수상의 우대를 해주는 사립 기관의 도서관으로 유능한 사서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별정직의 형태로든 수당 지급의 형태로든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국공립 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첩경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地方公務員任用令 問題

현행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는 사서라고 하는 직종이 없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단체가 건립한 공공 도서관에는 전문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특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일반 행정직으로 보하면 일도 잘 되지 않으려니와 담당자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문적으로는 유능한 사서를 쓰고자 해도 법적으로 직종이 없으니 쓸수가 없고 도서관을 운영하자니 제대로 되지 않아 시군립 도서관 운영상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사서 직종을 삽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소속청을 일원화하는 길 밖에는 없다.

《26페이지에서 계속》

도 이것은 東洋學을 專攻하는 이가 共通的으로 느끼고 있는 問題點이 될 것이다.

國會圖書館은 그 間 韓國學 研究를 위한 各種 主題分野의 書目과 索引에 이어 珍貴한 引譜와 巨篇의 本目錄을 編纂 刊行하였고, 앞으로 分類順古書目錄, 古書年表文集內容索引, 叢書內容索引, 傳記資料索引, 民族學資料索引 등 龐大한 基本的 參考資料를 編纂하여 刊行할 豫定이라하며, 그 一部가 머지 않아 結實을 보게 될 다하니 생각할수록 호뭇하고 기쁘기 그지없다. 이것은 결코 1個人的의 느낌이 아니요 國內外的 學界가 한결같이 그 不朽의 業績을 기리 銘記하고 있을 것임에 새삼 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방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任用上의 問題

현재 任用上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시험과목에 관한 문제요 다른 하나는 응시 자격에 관한 문제다. 적어도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한 이상 또 전문성을 인정한 이상 시험 과목이 전문 과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 과목은 면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특별 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어 실상 전공한 사람은 합격이 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자격 사서는 공개 채용 시험에의 응시율이 아주 저조하고 그 결과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합격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때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당사자도 업무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고 기관으로서도 운영상 애로가 수반되게 된다. 그래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그만두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격증 소지를 전제로 하되 시험 과목 자체를 전문 과목으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서직을 별정직화하여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채용 고시로 대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4. 結 語

이상으로 개략적이거나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상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바라건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인류 문명의 급진적인 발전은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임무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이 무거운 짐을 진 도서관과 사서직 등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국가 사회는 장족의 발전을 기할 것이다.

대전함을 느낀다. 이는 오로지 그 計劃을 손수 짜내고 그 實踐을 強力히 推進해 온 姜周鎭 館長 님을 爲頭로 이를 補弼해 온 關係官 들의 懇懇어린 賢勞의 結實임에 再三 敬謝한다.

끝으로 尹兄의 10餘年間에 걸친 晝夜不眠의 勞作에 대하여 淺學菲材한 筆者가 蛇足같은 愚見을 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韓國學 研究가 活氣를 띠기 시작하고 있는 무렵에 즈음하여, 稀罕한 우리의 文化遺産을 이토록 量의으로 集大成하여 研究의 方向을 提示해 주었고 아울러 메마른 學界에 勇氣와 希望을 불어넣어 준 點을 眞心으로 祝賀해 마지 않는 바이다. (千古山)